

# '만화 최강자 가리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이 우수 만화 발굴을 위한 국내 3대 만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NAVER 대학만화 최강자전', 'Daum 온라인만화 공모대전',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이다.

'NAVER 대학만화 최강자전'은 대학생과 교수가 한 팀을 이뤄 창작한 웹툰을 오직 독자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가려내는 국내 최대의 대학만화 공모전이다. 지난해 총 189팀이 참가했다.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즐바엔 작가 '제로게임'은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최종 상위 3인에게는 네이버 정식 연재권이 제공되며, 수상자 8인과 대상 멘토에게는 총 2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pms.komacn.kr/)를 통해 접수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Daum, CJ E&M이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 포스터.

공동주관하는 'Daum 온라인 만화 공모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 있는 작가와

## 국내 3대 만화공모전 개최 7월 7일~8일 신청 접수 신인 만화가 육성 목적

성공작을 배출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매해 200:1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공모전은 기획개발, 멘토링 및 프로듀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인 만화가를 육성하는 공모전으로, 아마추어 작가 및 연재 경험 3년 미만의 작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수상자인 웹툰 '그놈은 여고생'과 '홍도'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QQ(큐큐닷컴)와 U17(유유치)에 연재를 시작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매년 접수되는 1천여 작품 중 1차 예선 통과자 20인에게는 작품 개발 지원비 각 200만원과 전년도 수상자 멘토링 및 신기술 교육을, 2차 예선 통과자 8인에게는 각

300만원과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권 및 다음 웹툰 정식 연재권이 제공된다. 최종 수상자 5인에게는 총 2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월)까지 이메일(webtoon\_contest@hmail.net) 접수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은 만화계의 창작력 고양과 한국만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창작만화공모전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편만화와 카툰 2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대상에게 주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시상금 800만원을 비롯해 총 8명에게 3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pms.komacn.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n.kr)를 방문하거나 사업담당자(032-310-3023, 3025)에게 문의.

/이성주 기자



## 전통문화전당, 명장 석용 스님 '지화' 특별전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당3층 제2기 기획전실에서 지화 명장 석용 스님의 '천년을 가는 꽃, 지화' 특별전을 연다.



전통지화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으며 석용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장엄(전통지화) 이수자다.

전시 작품은 생전예수재 장엄에 사용되는 부채난등을 비롯해 불교에서 작약과 함께 불심으로 불리는 부귀의 상징, 꽃 중의 꽃 모란난등, 국화난등, 삼겹작약, 삼모란난등, 태평성대 등 30여점이다.

불교에서 꽃은 육법공양을 올릴 때 정성을 표하는 것 중의 하나로, 사시사철 구할 수 없고 사들기 때문에 한지로 만들어 사용한다.

지화 만들기는 염색, 채단, 자르기, 접기, 말기, 짚기, 누르기 등 정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스님들은 지화 장엄을 부처님을 만나는 또 다른 깨달음이자 수행으로 여긴다.

/정해은 기자



## 도립여성중고, 내일 '꽃보다 누나' 바자회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정은순)는 13일 9시30분~3시 도립여성중고 교정에서 '꽃보다 누나' 바자회를 연다. 행사는 이웃사랑과 지역봉사를 실천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익금은 이웃돕기와 학생회 기금 및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바자회에는 도립여성중고 재학생들이 직접 만든 비빔밥, 국수, 김밥, 송편, 식혜, 배추김치, 참기름, 옥수수, 누룽지 등 풍성한 청정 먹거리들을 비롯해 교과실습작품으로 제작한 수세미, 천연 세타비누, 액세서리 등이 판매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립여성중고를 졸업한 동문들을 초청해 후배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 위한 뜻을 나누는 '홈커밍데이'도 함께 열린다.

최진숙 회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도립여성중고 학생들이 협동과 나눔의 미덕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지역 여성 리더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배움의 열망을 품은 늦깎이 성인여성 어르신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지난 1998년에 설립,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바자회 관련 문의는 290-6890. /정해은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오늘 '키즈 콘서트'

군산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제48회 기획연주회를 미래 꿈나무와 가족들을 위한 '어린이가 행복한 키즈 클래식 콘서트'로 꾸민다.

이번 공연은 상임지휘자 김홍식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강경숙, 강현, 샌드아트 정명필, 미술사 오현승, 마임리스트 서기석이 함께해 클래식 공연과 함께 색다른 재미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과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로 동물의 움직임을 익살스럽게 표현해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군산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평소 클래식 연주회 관람이 어려운 유아기 무대 위 연주자들과 음악을 온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며 "군산시민 모두 클래식과 친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12일 저녁 7시 30분 군산에



군산시립교향악단 '키즈 콘서트' 포스터.

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석 무료로 펼쳐진다. /군산=문정근 기자

## 도 문화체육관광국, 투병 도립국악원 직원에 성금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108명은 투병중인 최정학(40세, 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 소속 직원)씨를 돕기 위해 모은 성금 410만원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

최정학씨는 지난 3월 21일 운전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는 상설공연추진단에서 홍보팀장을 역임하다가 지난해 4월 현 근무지인 도립국악원의 홍보담당으로 임용돼 30주년 기념공연과 관련해 전문지식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연을 들은 지역문화예술계

는 지난달부터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립국악원예술단이 1,350만원,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650만원, 2,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으며 계속해서 원금이 담지되고 있다.

성금모금 관련문의는 전라북도립국악원 사무국 공연팀 290-6449으로 하면 된다.

모금계좌 1021-01-2626826(전북) 예금주 정진권(정학아 일어나).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일본서 흠쳐온 한국불상 반환을" 국내 '문화재 제자리찾기' 등 주장

"한국 정부는 절도해 온 불상을 즉각 일본 쓰시마 사찰로 반환하라." 일본의 요청이 아니다.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온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되돌려주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다.

해외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문)와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입각해 불상을 지체 없이 간논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연히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을 그냥 먹겠다는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UN 가입국으로서 할 짓인가. 유네스코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장 돌려줘라"는 요구다.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이 간논지에서 절취한 것이다. 같은 날 인근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동조여래 입상도 훔쳤다.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정확한 반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내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 검찰이 일본 측 권리자(가이진 신사)에게 내어줬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과 충남서산 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을 겪었다. 인권정당 최용상 대표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제기, 이전금지 가져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3년 간의 가져분 효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력이 지난 2월 상실될 때까지 부석사는 분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와 간논지는 도난품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범인들의 유죄 확정 이후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가로 불수 절차가 진행됐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불수품 교부' 조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분실한 소유자의 반환요청이 있다면 검찰은 즉시 원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여년 전 왜구가 부석사에서 약탈한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문헌 증거가 없다. 고려시대의 부석사와 현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한국인 절도단의 범죄행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성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12일)

<p><b>▷쥐띠</b> 46년생: 중심을 잡고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60년생: 욕심을 부리면서 움직이면 실패가 따른다. 72년생: 앞으로 나아가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84년생: 동기인과 시비가수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고 진지하게 임하라.</p>	<p><b>▷소띠</b> 49년생: 금전적으로는 좋은 운이다.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되니 투기나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p>	<p><b>▷호랑이띠</b>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고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될 수 있으니 추진하라.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라.</p>	<p><b>▷토끼띠</b>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하라.</p>
<p><b>▷용띠</b>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라.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미리 대비하라.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b>▷뱀띠</b> 53년생: 결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다. 65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이다. 77년생: 윗 사람에게 의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되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b>▷말띠</b>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자숙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p>	<p><b>▷양띠</b> 55년생: 배움은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이니 독단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면 김하다. 91년생: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p>
<p><b>▷원숭이띠</b> 56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68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한다.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난관이 발생한다.</p>	<p><b>▷닭띠</b>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염려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는다.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라.</p>	<p><b>▷개띠</b> 46년생: 변동수를 갖는 것은 흉하니 때를 기다려라. 58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해야 한다. 70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자중해야 하는 운이다. 82년생: 물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돼지띠</b>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사소한 실수로 구설에 오르니 주의하라.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8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수가 따르는 운이니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p>